

개혁주의 정체성이 내 삶을 빚어가는

10가지 방법



‘개혁주의 신앙이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정체성은 단순히 몇 가지 신학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에 뿌리를 둔, 깊고 풍성한 삶을 세워가는 성경적 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개혁주의 정체성이 우리의 일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보여주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너무나 광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곧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저를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은 끊임없이 성취, 이성, 관계 등 거짓된 힘에 의지해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 오직 은혜만이 저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임을 마음 깊이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2.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내 것!’이라 선언하지 않으신 영역은 삶에 단 한 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고 자비로운 다스리심을 시작하셨고, 언젠가 모든 피조물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저는 제 삶의 모든 자리와 행동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기에, 날마다 “악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제 마음에 되새깁니다.

3.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이야기의 중심이며, 제 삶은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여정을 통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온전히 참여하며 제 삶의 여정을 써 내려갑니다. 매일의 일상과 관계, 희망과 꿈, 삶의 소명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 애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4. 저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뿐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과 능력, 질서를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분자와 피조물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계 5:13)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이와 감사,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지혜로운 설계를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두 책, 곧 성경과 창조 세계를 통해 배우고 과학적 탐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인류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려 하지만, 다른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오히려 제 안의 두려움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 8:4-6)

6. 저는 죄가 초래하는 황폐함을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죄를 '나쁜 짓'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리고 거짓과 권력 게임이 관계, 교회, 신학, 사회와 경제 시스템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2)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황폐함은 저를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합니다.

7.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때때로 제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염려할 일이 너무 많다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25-33)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저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습니다.

8. 저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저는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24시간 온전히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손과 발, 눈과 귀로 비유된 공동체(고전 12장)로 초대하시며,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6-17)

9. 저는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시편을 사랑합니다. 시편은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신자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거침없이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조용히 묵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라고 선포하실 때, 저는 더 이상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 동행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10.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농부, 교수, 간호사, 엔지니어, 은퇴자, 청소년,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은 물론, 상처받고 깨어진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회복 사명을 함께 이루는 대사들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후 5:17-20)

이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역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thrive@crcna.org로 연락 주세요.

810740

